

프로야구, 29일부터 FA 영입 전쟁 시작

등록 2020.11.28 10:57:29

구단	선수명	위치	생년월일	인정 연수	구분	등급	비고
두산 (7)	유희관	투수	1986.6.1	8	신규	A	대졸
	이용찬	투수	1989.1.2	9	신규	A	
	김재호	내야수	1985.3.21	4	재자격	B	
	오재일	내야수	1986.10.29	9	신규	A	
	최주환	내야수	1988.2.28	9	신규	A	
	허경민	내야수	1990.8.26	9	신규	A	
	정수빈	외야수	1990.10.7	9	신규	A	
LG (2)	차우찬	투수	1987.5.31	4	재자격	B	
	김용의	내야수	1985.8.20	8	신규	C	대졸
키움 (1)	김상수	투수	1988.1.2	9	신규	A	
KIA (2)	양현종	투수	1988.3.1	4	재자격	B	
	최형우	외야수	1983.12.16	4	재자격	B	
롯데 (1)	이대호	내야수	1982.6.21	4	재자격	B	
삼성 (2)	우규민	투수	1985.1.21	4	재자격	B	
	이원석	내야수	1986.10.21	4	재자격	B	
SK (1)	김성현	내야수	1987.3.9	9	신규	A	

*FA 미신청 선수: 권혁, 장원준(두산), 유원상(KT), 김현수(LG), 나주환(KIA), 장원삼(롯데), 김세현, 박희수, 윤석민(SK)

◇2021년 FA 승인 선수 명단*총 16명(신규 9명·재자격 7명)

[서울=뉴시스] 문성대 기자 = KBO(총재 정운찬)는 28일 2021년 FA 자격 선수로 공시된 25명 중 FA 승인 선수 16명의 명단을 공시했다.

2021년 FA 승인 선수는 두산 유희관, 이용찬, 김재호, 오재일, 최주환, 허경민, 정수빈, LG 차우찬, 김용의, 키움 김상수, KIA 양현종, 최형우, 롯데 이대호, 삼성 우규민, 이원석, SK 김성현 등 총 16명이다.

2021년 FA 승인 선수부터 적용되는 FA 등급제 시행에 따라 FA 승인 선수가 원 소속구단 외 다른 구단과 선수 계약을 체결할 경우, 원 소속 구단은 해당 선수의 등급에 따라 체결한 구단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.

신규 FA의 경우 A등급(기존 FA 계약선수를 제외한 해당 구단 내에서의 최근 3년간 평균 연봉 순위 3위 이내 및 전체 연봉 순위 30위 이내의 선수)은 해당 선수의 직전 연도 연봉의 200%에 해당하는 금전 보상과 FA 획득 구단이 정한 20명의 보호선수 외

선수 1명을 보상해야 한다. 해당 선수의 원 소속 구단이 선수 보상을 원하지 않을 경우 직전 연도 연봉의 300%로 보상을 대신할 수 있다.

FA 등급은 구단 순위와 전체 순위 모두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 시행 첫 해(2020시즌 종료 후)에 한해 리그 전체 연봉 순위 30위 이내에 위치하는 선수는 구단 내에서의 연봉 순위와 무관하게 A 등급으로 분류됐다.

B등급(구단 연봉 순위 4위~10위 및 전체 연봉 순위 31위~60위) 선수와 계약을 체결하는 구단은 해당 선수의 직전 연도 연봉의 100%에 해당하는 금전 보상과 FA 획득 구단이 정한 25명의 보호선수 외 선수 1명을 보상해야 한다. 해당 선수의 원 소속 구단이 선수 보상을 원하지 않을 경우 직전 연도 연봉의 200%로 보상을 대신할 수 있다.

C 등급(구단 연봉 순위 11위 이하 및 전체 연봉 순위 61위 이하) 선수와 계약을 체결하는 구단은 해당선수의 직전 연도 연봉의 150%에 해당하는 금전보상을 해야한다. 만 35세 이상 신규 FA는 연봉 순위와 관계없이 선수 보상 없이 직전 연도 연봉의 150% 해당하는 금전보상만으로 이적 가능하다.

두 번째 FA의 경우, 신규 FA B 등급과 동일한 보상 규정이 적용된다. 단, 신규 FA에서 이미 C 등급을 받은 재자격 선수는 동일하게 C 등급 보상을 적용 받는다. 세 번째 이상 FA 재자격을 얻은 선수의 경우에는 신규 FA C 등급과 동일한 보상 규정이 적용된다.

한편, 2021 FA 승인 선수는 29일부터 해외구단을 포함한 모든 구단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총 16명이 FA 승인 선수로 공시됨에 따라, KBO 규약 제173조 [FA 획득의 제한]에 따라, 각 구단은 원 소속 구단 FA 승인 선수를 제외하고, 타 구단 소속 FA 승인 선수 중 2명까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©공감언론 뉴시스 sdmun@newsis.com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